

#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과 對內外政策 展望

1994. 3.

姜元植(國際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 - 目 次 -

I. 問題 提起	1
II. 國民投票 및 議會選舉 結果	2
1. 國民投票	2
2. 聯邦議會 選舉	4
III. 權力構造 改編 結果	8
1. 聯邦議會	8
2. 聯邦政府	12
3. 安全保障會議	14
IV. 評價와 展望	15
1. 러시아民族主義 대두	15
2. 憲法改正 論議 재연	18
3. 엘친 대통령의 權力基盤 약화	19
4. 經濟政策 穩健化	22
5. 實利主義的·러시아中心主義的 外交·安保政策 추구	25
6. 舊體制 回歸 可能性 희박	29
V. 韓國의 考慮事項	31
<부록> 聯邦議會 選舉參加 政黨·政治團體	35

## - 도표 목차 -

<도표 1> 신헌법 채택여부 國民投票 結果 .....	2
<도표 2> 國家機關間 權力關係 .....	3
<도표 3> 國家두마 選舉 結果 .....	6
<도표 4> 國家두마內 交渉團體別 議席 現況 .....	9
<도표 5> 聯邦會議內 政治勢力 分布 .....	11
<도표 6> 聯邦政府 主要閣僚 名單 .....	13
<도표 7> 엘친 대통령에 대한 支持度 .....	21

## I. 問題 提起

- 1993. 12. 12 실시된 新憲法 채택을 위한 國民投票과 聯邦議會 選舉 결과, 신헌법은 채택되었으나 의회선거에서 자유민주당, 공산당, 농업당 등 保守·民族勢力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急進改革政策을 이끌어 온 가이다르 팀이 퇴진하는 등 러시아 權力構造 改編이 진행되고 있음.
- 러시아의 권력구조 개편은 러시아 國內情勢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對內外政策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韓半島 統一環境에 중요한 變數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러시아 국민투표와 의회선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회에서의 權力構造 改編過程을 추적함으로써 러시아 國內情勢의 向方을 예측하고, 나아가 對內外政策 方向을 전망하고자 함.

## II. 國民投票 및 議會選舉 結果

### 1. 國民投票

- 러시아 新憲法 채택 여부를 묻는 國民投票가 1993. 12. 12 실시되었는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결과 공식 발표에 의하면, 全體 有權者의 54.8%가 투표한 가운데 찬성 58.4%, 반대 41.6%로 新憲法은 채택되었음 <도표 1 참조>.

<도표 1> 신헌법 채택여부 國民投票 結果

	총 수	투표자대비 (%)	유권자대비 (%)
총투표자	58,187,755	100	54.8
찬성	32,937,630	58.4	-
반대	23,431,333	4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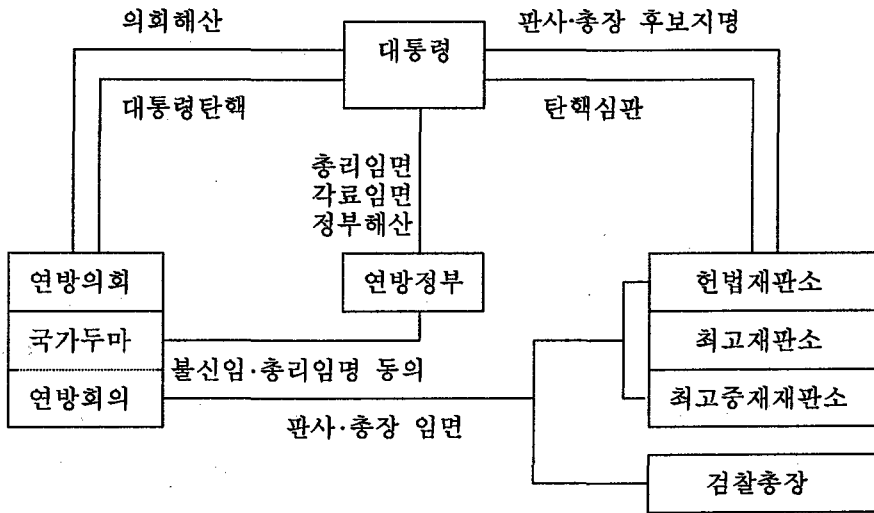
자료: Rossiyskaya gazeta, 1993. 12. 25.

- 이번 국민투표는 1990. 10 國民投票法에 의해 실시된 「레퍼런덤」(referendum)이 아니라, 1993. 10. 15 발표된 러시아 대통령의 신헌법채택 관련 國民投票令에 의해 실시된 「프레비시트」(plebistsit)인 바, 프레비시트를 실시한 理由는 다음과 같음.
  - 1990. 10 國民投票法에 따르면, ①大統領은 독자적으로 레퍼런덤에 회부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지 않으며, ②레퍼런덤은 헌법적 사항에 대해 有權者 過半數로 결정하고 비헌법

적 사항에 대해 投票者 過半數로 결정함.

- 따라서 新헌법 채택여부가 레퍼런덤에 회부될 경우, 유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바, 대통령이 過半數 投票에 過半數 通過를 규정한 프레비시트를 임의 실시함으로써 新헌법 채택을 강행하려 하였기 때문임.<sup>1)</sup>

<도표 2> 國家機構間 權力關係



1) 일반적으로 레퍼런덤은 憲法上 制度化되어 있는 것으로 의회가 의결한 국가의 중요정책, 헌법개정안 등 일정한 중요사항을 국민이 직접투표로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며, 프레비시트는 憲法上 制度化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영토병합·변경문제 또는 집권자에 대한 신임 여부 등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방식임. 따라서 프레비시트는 專制的 支配者가 권력의 정통성을 補完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프레비시트는 獨裁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된 수단에 지나지 않음. 이러한 독재를 「國民投票制的 獨裁」(plebiscitary dictatorship)라고 함. 權寧星, 「憲法學概論」(서울: 法文社, 1988), pp. 594~595.

## 2. 聯邦議會 選舉

- 대의·입법기관인 聯邦議會(Federal'noe sobranie)는 兩院制로서 상원인 聯邦會議(Sovet Federatsii)와 하원인 國家두마(Gosudarstvennaya дума)로 구성되는 바, 兩院 選舉가 12. 12 동시 실시되었음.
  - 연방회의는 憲法規定上 연방구성주체 총 89개의 입법·대의기관과 집행기관에서 각 1인씩 2인의 代表로 구성되나, 初代에 한하여 89개 선거구에서 2인까지 선출하는 連記制 投票方式의 選舉로 실시되었음.
  - 국가두마는 小選舉區의 1인 선거와 全國區의 拘束名簿式 比例代表 選舉로 각각 半數(225명)가 선출되는 小選舉區·比例代表 竝立制方式으로 실시되었는 바, 小선거구는 最大多數 得票者 1인을 선출하고, 전국구는 유효득표 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選舉團體別 得票數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였음.

### 가. 聯邦會議

- 연방회의 의원 총수 178명 가운데 일부 연방구성주체의 選舉拒否(체첸공화국 2석)와 有效投票 미달(타타르스탄공화국 2석, 체



라빈스크州 2석, 야말로·네네즈자치주 1석)로 171명만 선출됨.

- 연방회의 선거에서는 입후보가 政黨·團體 所屬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所屬立候補 名簿를 제출한 선거단체도 러시아選擇 뿐이었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정당·단체별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 자기 소속을 분명히 밝힌 의원은 27명으로서 공산당 10명, 러시아선택 5명, 통일합의당 1명, 민주개혁운동 1명,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거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정당·정치단체 10명이었음.<sup>2)</sup>
- 선출된 연방회의 의원을 出身背景別로 분석하면, 약 50%는 당해 연방구성주체의 행정·입법기관 고위관료이며, 10%는 국영기업 책임자 및 사기업 대표임.<sup>3)</sup>

---

2) 러시아선택으로 밝힌 의원의 경우, 사실상 체르노미르진 총리와 가까운 中道派임. *Russkaya mysl'*, 1994. 1. 6~12; Vera Tolz, "Russia's New Parliament and Yeltsin: Cooperation Prospects,"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5 (February 4, 1994), p. 4 에서 재인용.

3) *Rossiyskie vesti*, 1993. 12. 18. 따라서 연방회의를 「지방행정장관 모임」(club of governors)으로 평가하는 논설도 있음. Arkady Dubnov, "The Council of the Federation: a Chamber of the 'Pure'?", *New Times*, no. 3 (January 1994), p. 11.

*Russkaya mysl'*, 1994. 1. 6~12에 의하면, 地方官僚는 총 81명인데, 공화국 대통령 6명, 공화국 총리 10명, 각급 최고회의 의장 18명, 기타 지방 행정수장 43명(36명은 엘친이 임명, 7명은 피선), 대통령대표 4명임.

<도표 3> 國家두마 選舉 結果

	정당·정치단체	총의석		전국구	지역구	
		①	②		①	②
개 혁	러시아선택	71	96	40	31	56
	러시아통일합의당	22	27	18	4	9
	러시아민주개혁운동	5	8	0	5	8
	(소 계)	98	131	58	40	73
중 도	야블로코	27	33	20	7	13
	러시아여성	24	25	21	3	4
	러시아민주당	16	21	14	2	7
	시민동맹	7	18	0	7	18
	존엄과 자비	2	3	0	2	3
	러시아미래	1	1	0	1	1
	환경운동	0	0	0	0	0
	(소 계)	77	101	55	22	46
보 수 민 족	자유민주당	64	70	59	5	11
	러시아공산당	48	65	32	16	33
	농업당	39	47	21	18	26
	(소 계)	151	182	112	39	70
무 소 속		118	30	0	118	30
총 계		444		225	219	

자료: ①Rossiyskaya gazeta, 1993. 12. 28; ②ITAR-TASS, 1993. 12. 25.

\* ①은 정당별 공식당선자 집계이며, ②는 무소속 당선자중 원소속정당별로 재분류한 결과임.

#### 나. 國家두마

- 국가두마 의원 450명 가운데 小選舉區 選舉에서 선거거부(체첸

공화국 1석) 또는 유효투표 미달(타타르스탄공화국 5석)로 6석은 선출되지 않았음. 選舉結果는 <도표 3>와 같으며, 선거참가 정당·정치단체의 대표자 및 政策性向은 <부록> 참조.

- 急進改革派는 총 444석 가운데 98~131석 22~29%, 中道派는 77~101석 17~22%, 保守民族派는 151~182석 34~40%를 각각 확보하였음.

### Ⅲ. 權力構造 改編 結果

#### 1. 聯邦議會

- 연방의회 상하 양원은 1994. 1. 11 동시 개원되어, 議長·副議長 및 委員長을 선출하고, 院內交涉團體를 구성하였음.
- 聯邦會議 議長에 개혁파인 슈메이코(Vladimir Shumeyko) 前 제1부총리가 당선되었으나, 國家두마 議長에는 보수파인 농업당의 리이프킨(Ivan Rybkin)이 당선됨.<sup>4)</sup>
  - 국가두마 副議長에는 러시아선택, 신지역정책, 자유민주당, 공산당, 러시아여성에서 각 1명씩 5명이 선출되었음 (<도표 4> 참조).
  - 연방회의 부의장에는 아이둘라찌포프(Ramazan Aydulatipov) 와 빅토로프(Valerian Viktorov)가 선출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아직 선출되지 않았음.<sup>5)</sup>

---

4) 슈메이코는 決選投票(1. 13)에서 98표를 획득하여 화학콤비나트 공장장 로마노프, 칼미키야공화국 대통령 일류무지노프, 前 스페르들롭스크주지사 로세리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리이프킨은 농업당·공산당 보수파·자유민주당의 후원하에 결선투표(1. 14)에서 민족파의 블라스프를 누르고 과반수보다 1표가 많은 223표(반대 101표)로 당선되었음.

5) 아이둘라찌포프는 統一合意黨 소속이며, 빅토로프는 추바시야공화국 총리인데, 정치적 성향은 市民同盟에 가까우나 선거에서는 러시아選擇의 후원을 받았음.

- 국가두마의 交渉團體 구성(1. 14)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각 교섭단체별로 이합집산한 결과, 急進改革派 3개 단체 126석, 中道派 4개 단체 128석, 保守民族派 4개 단체 168석으로 되어, 反急進改革 勢力이 3분의 2 이상을 점하게 되었음.
- 국가두마의 各 委員會 委員長 선출 결과, 러시아선택 4개, 통일합의당 3개, 신지역정책 3개, 야블로코 2개, 러시아여성 1개, 자유민주당 5개, 농업당 2개, 공산당 2개, 민주당 1개 등으로 總 23개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되었음.
  - 自由民主黨은 최대 5개 직책을 차지하였으나, 국방·안전보장·외무·법제·예산 등 주요 위원회 장악에는 실패하였음.

<도표 4> 國家두마內 交渉團體別 議席 現況

	교섭단체명	의석	지도자 및 원내 직위
개 학	러시아선택	76	M.Mityukov 국가두마 제1부의장 S.Yushenkov 국방위원장 V.Bauer 국가두마 조직위원장 B.Denisenko 보건위원장 M.Poltoranin 정보정책·통신위원장
	러시아통일합의당	30	K.Zatulin CIS업무·재외동포관계위원장 A.Sliva 지방자치문제위원장 S.Shapovalov 연방·지방정치업무위원장
	「12월12일동맹」의원연합	20	

중 도	「신지역정책」의원그룹	65	未定 국가두마 부의장 L.Rozhkova 교육·문화·과학위원장 B.Zhmsuev 민족업무위원장 S.Burkov 소유제·사유화·경제활동위원장		
	야블로코	25	V.Lukin 외무위원장 M.Zadornov 예산·조세·은행·재정위원장		
	러시아여성	23	A.Fedulova 국가두마 부의장 G.Klimantova 여성·가족·소년업무위원장		
	러시아민주당	15	S.Glaz'ev 경제정책위원장		
보 수	러시아자유민주당	63	A.Vengerovskiy 국가두마 부의장 V.Ustinov 지정학문제위원장 M.Lemeshev 환경위원장 S.Kalashnikov 노동·사회지원위원장 N.Astaf'ev 천연자원·자연이용위원장 V.Gusev 공업·건설·수송·에너지위원장		
			러시아농업당	55	I.Rybkin 국가두마 의장 V.Isakov 입법·사법개혁위원장 A.Nazarchuk 농업문제위원장
					러시아공산당
			「러시아길」의원그룹	5	

자료: *Argumenty i fakty*, no. 4 (693), yanvary 1994g., s. 2.

- \* 「12월12일동맹」 의원연합(Deputatskoe ob'edinenie Soyuz 12 dekabrya)은 위원회가 전문성 보다는 정치적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위원회 편성 참가를 거부하였음. 지도자는 Aleksandr Braginskiy임.
- \* 「신지역정책」 의원그룹(Deputatskaya gruppa Novaya regional'naya politika)은 급진개혁에 소극적인 産業指導層을 기반으로 地方出身의 무소속의원들이 결성한 교섭단체로서 대표는 메드베제프(Vladimir Medvedev)임.
- \* 「러시아길」 의원그룹(Deputatskaya gruppa Rossiyskiy put')에는 A. Nevzorov, V. Tikhonov, A. Luk'yanov, Yu. Vlasov, S. Baburin 등이 참가하고 있음.

- 연방회의 의원의 경우 政治勢力別 分布現況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우나, 모스크바 情報分析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도표 5>와 같음.

<도표 5> 聯邦會議內 政治勢力 分布

	정당·정치단체명	의석수(추정치) <sup>1)</sup>
급진개혁 (48)	러시아선택	40
	러시아통일합의당	4
	러시아민주강령운동	1
	야블로코 <sup>2)</sup>	3
은건개혁파 <sup>3)</sup>		23
반정부 중도파 <sup>4)</sup>		36
공산사회 (20)	러시아공산당	15
	농업당	3
	사회주의노동당	1
	노동당	1
극우민족 (2)	쿠반 코작운동	1
	러시아민족회의	1

자료: *Russkaya mysl'*, 1994. 1. 6~12; Vera Tolz, "Russia's New Parliament and Yeltsin: Cooperation Prospects,"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5 (February 4, 1994), p. 5에서 재인용.

- 주1) 연방회의 의원들의 연설 또는 여타 자료에 의거하여 판정한 추정치임.
- 2) 야블로코는 급진개혁파라기 보다는 穩健改革 中道派로 보는 것이 적절함.
- 3) 穩健改革派의 대다수는 체르노미르진 총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
- 4) 反政府 中道派의 대다수는 시민동맹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 2. 聯邦政府

- 1994. 1. 10 엘친 대통령은 副總理를 4명(제1부총리 2명 포함)으로 하고, 연방정부부처·위원회·기관의 數를 120개에서 67개로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국방부·외무부·내무부·방첩기관 등 주요 부처를 大統領 직할기관으로 규정한 大統領令에 서명하였음.<sup>6)</sup>
- 聯邦政府 개편결과, 가이다르(Yegor Gaydar) 제1부총리와 표도로프(Boris Fedorov)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 개혁파 핵심이 사임하고, 야로프(Yuriy Yarov)와 자베류하(Aleksandr Zaveryukha) 등 보수파 부총리는 잔류하였음.<sup>7)</sup>
  - 개혁파의 경우, 가이다르와 표도로프 이외에도 슈메이코 제1

6) 방첩기관은 1993. 12. 21 엘친의 保安部 解體令에 의해 창설된 새로운 정보기구임. 保安部 해체 의미와 防諜機關 및 對外諜報機關 등 保安部處의 역할에 대해서는 Victor Yasmann, "Security Service Reorganized: All Power to the Russian President?,"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6 (February 11, 1994) 참조. 한편 엘친은 1. 13 국유재산관리국가위원회 의장(츄바이스)을 1. 10 大統領令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총리로 임명하는 大統領令에 서명함.

7) 표도로프는 聯邦政府 改編結果에 대해 "구소련의 중앙지령형의 생기없는 이데올로그와 「붉은 기업가」가 연방정부를 장악하였다. 이는 국가를 붕괴시킬 것이다. 러시아 경제의 「우크라이나화」(超인플레이 등 위기첨예화)가 이미 진행중이다"고 평가함.

가이다르는 新政府內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수정된 經濟政策의 共同 責任을 지기보다는 러시아선택의 代表로서 議會內에서 힘을 축적하여 차기 대통령선거를 대비하는 것이 最善이라고 판단하여, 保守派의 압력으로 改革을 중단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정치순교자」로서 象徵化하고 루블화 약세와 재정적자 확대의 책임을 新內閣에 전가함으로써 經濟安定을 위해서는 改革派의 再執權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임.



부총리가 연방회의 의장 피선으로 免職되었으며, 샤흐라이 (Sergey Shakhray)와 쇼힌(Aleksandr Shokhin) 부총리는 정부구조 개편으로 免職(장관직은 유임)되었음.

<도표 6> 聯邦政府 主要閣僚 名單

총 리	Viktor Chernomirdin		
제1부총리	Oleg Soskovets		
부 총 리	민영화담당	Anatoriy Chubays	
	사회보장담당	Yuriy Yarov	
	농업담당	Aleksandr Zaveryukha	
장 관	재무 Sergey Dubinin(직무대리)	경제	Aleksandr Shokhin
	외무 Andrey Kozyrev	국방	Pavel Grachev
	내무 Viktor Yerin	법무	Yuriy Kalmykov
	농업·식량 Viktor Khlystun	민족·지역정부	Sergey Shakhray
	보건·의료산업 Eduard Nechaev	사회보장	Ella Pamfilova
	환경·천연자원 Viktor Danilov-Danil'yants		
	민간방위 및 비상·자연재해 Sergey Shoygu		
	TV·라디오방송 Aleksandr Yakoblev		
	방첩기관 장관 Nikolay Golushko (94. 2. 28 해임됨)		
	대외첩보기관 장관 Yevgeniy Primakov		
중앙은행 총재 Viktor Gerashchenko			

- 美하버드대학 교수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와 스웨덴 경제학자 앤더스 애슬룬드(Anders Aslund)는 1. 21 러시아정부 고문을 사임하였음.
- 한편 大統領府에서는 개혁파인 필라토프(Sergey Filatov) 대통령부 장관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중도파인 일류신(Viktor

Ilyushin) 수석보좌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3. 安全保障會議

- 實質的 權力機關인 安全保障會議 개편에서 가이다르와 표도로프의 퇴진으로 급진개혁파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는 바, 향후 러시아의 對內外政策 決定의 主要 變數로 작용할 것임.
  - 안전보장회의는 外交·國防 등 주요 國政懸案을 협의·결정하며, 각 정부부처는 안전보장회의 決定에 대해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함.
- 1994. 2. 1 「안전보장회의 위원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安全保障會議는 엘친 대통령을 議長으로 체르노미르진 總理와 로보프(Oleg Lobov) 書記를 상임위원으로 하여, 방첩기관 장관(골루시코), 국방장관(그라초프), 내무장관(예린), 외무장관(코지레프), 법무장관(칼미코프), 대외첩보기관 장관(프리마코프), 민족·지역정무장관(샤호라이), 민간방위 및 비상·자연재해장관(쇼이구) 등으로 구성됨.<sup>8)</sup>

---

8) 1993. 10. 20 「안전보장회의 위원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금까지 안전보장회의 위원은 총리와 로보프 서기를 포함하여 가이다르 제1부총리, 골루시코 보안장관, 그라초프 국방장관, 다닐로프·다닐란쯔 환경·자원 장관, 예린 내무장관, 칼미코프 법무장관, 코지레프 외무장관, 네차예프 보건장관, 프리마코프 대외첩보기관 장관, 페도로프 부총리·재무장관, 샤호라이 부총리·연방민족문제국가위원회 의장 등이었음.

## IV. 評價와 展望

### 1. 러시아民族主義 대두

- 지리놉스키가 이끄는 極右民族主義 政黨인 자유민주당은 국가 두마의 院內 交渉團體 구성에서 총 63석을 차지하여 76석의 러시아選擇과 65석의 신지역정책 다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保守共產系인 공산당과 농업당은 각 55석과 45석을 차지하였음.
    - 신지역정책은 政黨이 아니므로 자유민주당, 공산당, 농업당이 실질적인 核心野黨으로 기능할 것이며, 자유민주당, 공산당, 농업당의 議席 合計는 163석으로서 총 450석의 1/3을 상회 (36.2%)함.
  - 자유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 1,500만표를 획득하였는 바,<sup>9)</sup> 지리놉스키 지지세력은 상대적으로 교육받고 숙련되어 평균이상의 소득수준을 향유하는 젊은 産業勞動者와 軍人들로서 「약한 정부」의 無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범죄 등 사회·경제적 혼란이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강력한 國家統制를 통한 구
- 
- 9) 1991년 대통령선거에서 지리놉스키는 600만표를 획득하였으며, 또 다른 극우민족주의자인 마카쇼프(Albert Makashev)는 300만표를 획득한 바 있음(*Izvestiya*, 1991. 6. 17). 따라서 極右民族主義 支持者는 1991년에 비하여 거의 倍增하였음. 마카쇼프는 현재 自由民主黨 소속임.

소련과 제정러시아의 榮光 회복을 회구하는 세력인 것으로 분석됨.<sup>10)</sup>

○ 이번 選舉에서 지리놉스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理由는 다음과 같음.

- 구소련 해체로 러시아民族主義가 상처받고 있었음.
- 러시아 유권자들은 입후보의 구체적인 政見 보다는 政黨의 輿論操作에 미혹되었음. 자유민주당은 TV 등 언론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民族主義的 리더십을 통하여 러시아 부흥을 손쉽게 이룩할 수 있다고 공약하였음. 이는 러시아 유권자들의 政治的 未成熟性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穩健 代替勢力인 시민동맹, 야블로코, 통일합의당, 민주강령운동 등이 러시아선택과는 구별되는 選舉綱領을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이들을 러시아선택과 동일시하였음.
- 따라서 지리놉스키의 성공은 엘친·가이다르 팀에 대한 反對

---

10) 「이즈베스찌아」는 지리놉스키 지지자를 ①대도시출신으로 교육받은 25~40세의 젊은 남자로 이루어진 核心支持者와 ②이들보다는 年老하며 적게 교육받았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소도시출신의 구소련 노동자계급으로 분류하고, 공산당 지지자들은 단순히 생활수준 하락에 불만을 가진데 반하여, 지리놉스키 지지자들은 구소련 해체이후 사회 전반의 혼란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며, 급진개혁의 직접적인 被害者는 아니라고 평가함. 따라서 선거후 신정부가 社會福祉支出 증가를 공약하고 있으나, 지리놉스키 지지자를 회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논평함. *Izvestiya*, 1993. 12. 30. 이외에도 엘친의 기자회견(12. 22)에 따르면 軍人の 3분의 1이 지리놉스키를 지지하였음.

給付로서 나타난 것으로서 엘친의 경제정책에 대한 不滿과 既成政黨과 政治圈에 대한 전반적인 不信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평가됨.

- 지리놉스키는 국가두마 議員으로서의 地位와 자유민주당의 黨勢를 활용하여 러시아民族主義에 의존한 정치선전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1996년 대통령선거를 준비할 것임. 그러나 지리놉스키가 次期大權을 장악하기는 역부족일 것임.
  - 지리놉스키는 정치선동가로서 구체적인 政策代案을 결여하고 있는 바, 議政活動을 통하여 자신과 자민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러시아민족주의를 고려하여 러시아人 보호와 러시아 국익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추진하고 있는 바, 지리놉스키를 러시아民族主義의 化身으로 象徵化하는 여론 조작도 설득력을 점차 잃어갈 것임.
  - 더욱이 러시아선택을 비롯한 急進改革派는 물론, 中道勢力과 保守勢力까지도 지리놉스키를 경계하고 있어 영향력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것임.<sup>11)</sup>

---

11) 이미 검찰청은 1. 26 刑法 제71조에 의거, 지리놉스키가 구소련 및 제정 러시아의 영토회복을 위해 폴란드, 핀란드, 알래스카 합병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著書 「남방으로의 최후의 돌파」에서 터어키 및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촉구하고 있다는 理由에서 지리놉스키를 戰爭煽動罪(3~8년 징역형)로 기소하였음. 또한 지리놉스키의 選舉區인 모스크바州 시첼코보區 재판소는 2. 25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지리놉스키는 이

## 2. 憲法改正 論議 재연

- 신헌법이 국민투표 결과 합법적으로 채택되었으나, 憲法 改正 움직임이 재차 公論化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신헌법 채택을 위한 캠페인과정에서 民主黨, 市民同盟, 共產黨, 야블로코 등은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반대하여 신헌법 채택을 적극 反對하였는 바,<sup>12)</sup> 이들만으로도 헌법개정 발의 요건(국가두마 의원 1/5 이상 지지)을 상회함.
  
- 그러나 反열친 세력내에서도 自由民主黨의 경우, 러시아의 復興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權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헌법 채택을 적극 찬성하였음.<sup>13)</sup> 따라서 헌법개정이 발의되더라도 새로운 草案 合意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憲法改正 要件(연방회의 3/4, 국가두마 2/3 찬성)을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임.

---

에 대해 異議申請中임.

- 12) 야블린스키는 향후 2년 이내 연방의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Nezavisimaya gazeta*, 1993. 12. 8.
- 13) *Nezavisimaya gazeta*, 1993. 12. 8의 “지리놉스키草案과 大統領草案”이라는 제하의 Oleg Malyarov의 논문 참조. 이에 따라 新憲法 채택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政黨은 러시아選擇과 自由民主黨이었음. 신헌법에 대한 각 政黨의 立場에 대해서는 *Moskovskie novosti*, no. 49, 1993. 12. 5 참조.

### 3. 엘친 대통령의 權力基盤 약화

- 엘친은 신헌법으로 부여된 강력한 大統領 權限과 연방의회내의 勢力 分散性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방의회와의 關係를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유도함으로써 1996. 6 자신의 任期滿了時까지 權力基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대통령은 자신이 발의한 法律案이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大統領令을 통하여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대통령의 정책에 反하는 법률안이 채택될 경우 이를 拒否할 수 있음. 또한 연방회의와 국가두마가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움.
  - 국가두마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어도 연방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적으며,<sup>14)</sup> 대통령은 헌법규정에 따라 의회구성후 1년후부터는 議會解散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議會內 合意가 어려울 것인 바, 大統領은 의회의 同意를 구하기 보다는 급진개혁세력과 온건개혁세력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반대파의 결집을 방해하는 등 議會內 派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對議會 關係를

---

14) 엘친 대통령은 국가두마 보다는 연방회의와의 협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연방회의 구성상, 地方行政·立法官僚가 半數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것이므로 聯邦政府와의 알력 소지가 큼. 따라서 事案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

모색해 나갈 것임.<sup>15)</sup>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친의 權力基盤은 총선결과 매우 不安定해진 것으로 평가됨.
- 1993. 12 國民投票는 1991. 6 대통령선거와 1993. 4 국민투표에 비하여 투표율과 지지율이 낮았다는 점에서 엘친의 國民的 支持度가 低下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도표 7> 참조).
- 총선 결과, 산업계의 강력한 후원하에 實勢로 등장한 체르노미르진 總理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과 권위가 저하됨.
- 엘친의 실질적 지지기반인 러시아선택이 총선이후 체르노미르진 總理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sup>16)</sup>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도로프 前 부총리는 러시아선택을 이탈하여 12月12日 同盟에 가담하였고, 가이다르와 필라토프는 각각 독자적인 新黨 창설을 구상하고 있음.

---

15) 이는 지금까지 엘친이 계속 구사하여 온 手法으로서 改革派와 中道派라는 두개의 상반된 政策指向을 가진 人脈網을 동시에 포용하여 의회와 정부를 관리하여 왔음. 이러한 방식은 政權維持 次元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權力鬭爭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자세한 내용은 姜元植, “러시아 權力鬭爭의 展開過程과 特性,” 한국슬라브학회 학술대회 (1993. 12. 12) 발표논문 참조.

16) 폴도라닌 전 부총리는 체르노미르진 총리에 대한 批判을 강화하여 退陣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르볼리스 전 국무장관은 총리와의 관계를 더이상 惡化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도표 7> 엘친 대통령에 대한 支持度

	투표율	지지율	총유권자대비
1991. 6 대통령 선거	74.7	57.3	42.8
1993. 4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64.2	58.7	37.7
1993.12 신헌법 채택 국민투표	54.8	58.4 (56.6)	32.0 (31.0)

자료: *Pravda*, 1991. 6. 20; *Pravda*, 1993. 5. 6; *Rossiyskie vesti*, 1993. 12. 25.

\* 1993. 4 국민투표의 제1문항은 “당신은 엘친대통령을 신임하는가” 였음.

- 국가두마에서는 反急進改革 세력이 2/3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의 인민대의원대회에 비하여 극단적 보수파가 많이 진출하였음.<sup>17)</sup> 더욱이 共産黨과 農業黨이 연계할 경우 最大의 政治勢力으로 대두될 것인 바, 대통령 탄핵을 발의(국가두마 의원 1/3 이상)하는 등 적극적인 反엘친 공세를 강화할 것임.
  - 특히 國家두마는 1991. 8 쿠데타미수사건, 1993. 5 노동절 유혈사건, 1993. 9~10 의회해산령에 따른 소요사건 관련자에 대한 刑執行 免除 또는 刑事訴追 停止를 결의(2. 23)하여 루츠코이 전 부통령과 하즈블라토프 전 최고회의 의장 등을 赦免 釋放함으로써 엘친 대통령에 정면 도전하였음.<sup>18)</sup>

17) 예를 들면, TV 기자 네브조로프(Aleksandr Nevzorov), 자유민주당보다 훨씬 파시스트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國民共和黨 지도자 리센코(Nikolay Lysenko), 스탈린社會 의장 베고프(Omar Begov) 등 極右民族主義者들이 당선되었으며, 共産系에서도 모스크바의 검사 출신인 일류힌(Viktor Ilyukhin),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치인 벨로프(Yuriy Belov) 등 強硬派가 당선되었음. Vera Tolz, “Russia’s Parliamentary Elections: What Happened and Why,”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2 (January 14, 1994), p. 2.

- 따라서 향후 엘친 대통령은 「지리눅스키현상」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강력한 大統領制가 파시즘에 대한 효과적인 防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權力基盤을 효과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어려울 것이며, 2년후의 大統領選舉에서 재선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 의회의 早期 大選 요구, 엘친의 건강 악화(간장병) 등을 감안할 때, 大統領 選舉가 조기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次期 大權을 겨냥한 競爭이 서서히 표면화되어 현재 가이다르, 샤흐라이, 야블린스키, 지리눅스키, 루츠코이 등이 대통령후보로서 거명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음.

#### 4. 經濟政策 穩健化

- 내각개편 결과, 향후 러시아의 경제정책은 급진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강조해 온 가이다르路線을 수정하고,<sup>19)</sup> 重工業과

18) 同 赦免 결의에는 러시아선택 소속의원 만이 반대하였음.

19) 경제정책에 있어서 체르노미르진 총리와 가이다르·포도로프 경제팀간의 결정적인 差異는 금융·재정정책을 둘러싸고 가이다르 팀이 계속 金融統制와 財政緊縮을 주장한 데 반하여, 체르노미르진은 국영기업과 집단농장 등에의 融資 확대를 강조해 왔던 것임. 이에 따라 내각개편후 체르노미르진 총리는 “개혁은 후퇴되지 않을 것이나, 노선은 수정된다. 通貨主義的手法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市場 浪漫主義」時代는 끝났으며, 「生産力 盲信」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한 바 있음.

農業部門의 생산회복 및 社會的 弱者 보호·구제를 중심으로 입안·추진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군수산업을 포함한 공업총괄의 소스코베쯔 제1부총리와 국가에 의한 농업 보호를 주장하는 자베류하 부총리, 사회보장 담당의 야로프 부총리 등이 유입한 사실로 例證되며, 이들은 모두 석유·가스업계를 배경으로 한 체르노미르진의 人脈과 연계되어 있음.<sup>20)</sup>
- 이에 따라 향후 러시아정부는 市場經濟體制로의 漸進的 移行을 目標로 시장기능과 국가통제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sup>21)</sup> 특히 軍産複合體와 農業部門에 대한 기존 정책은 전면 수정될 것임. 이미 정부는 1. 25 농업과 군산복합체 등에 4조 루블을 1994년 1/4분기 동안 지출하고, 공무원 임금을 1.9배 인상할 방침임을 발표함.<sup>22)</sup>

---

기본적으로 체르노미르진의 경제정책은 市民同盟의 주장에 대체로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민동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Michael Ellman, "Russia: The Economic Program of the Civic Union,"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1 (March 12, 1993), pp. 34~45 참조.

- 20) 통일합의당 출신으로 가이다르의 후임인 쇼힌 경제장관과 민족담당 사흐라이 장관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政策方向에 동조하고 있음. 한편 急進改革派로서 유일하게 부총리로 잔류한 추바이스는 民營化가 끝나는 여름까지의 「殘務處理 담당」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음.
- 21) 엘친 대통령은 2. 24 上下兩院 合同總會에서 발표한 최초의 年頭敎書 演說에서 "효과적인 국가조정과 시장메카니즘을 조화시키면서 경제개혁을 심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 22)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종업원 임금 지불 지연·중단으로 인한 러시아내 企業間 未支拂債務가 현재 총 20조 루블에 달하며, 원유생산과 탄광 등 에너지 부문에서의 抗議 罷業이 다발하고 있음. 특히 3. 1 전체 탄광노동자의 약 8할이 항의 파업을 단행하였음.

- 인플레이 抑制와 관련, 통화공급량 조절 만에 의하지 않고 식료품 등 물가와 임금을 일부 통제하는 등 計劃經濟的手法을 일부 도입할 것이나, 物價上昇 등 經濟混亂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것임.
  - 내각개편 직후 체르노미르진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인플레이 대책으로 지금까지의 緊縮政策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시장개방과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제한 철폐 등에 의한 競爭促進策을 활용할 의향을 표명하였음. 이를 통하여 인플레이 率을 1994년 상반기 15~18%, 하반기 12~14%으로 하고 연말에는 8~9%로 억제할 방침임.
  - 이와 관련, 경제정책 수정을 담당하는 專家그룹이 소스코 베즈 제1부총리의 지휘 하에 작업을 개시하였는 바, 課題는 ①통화공급량 조절에 의하지 않은 인플레이 抑制策, ②공업과 농업의 生産低下 극복책, ③不採算企業의 폐쇄절차 작성 등 임.<sup>23)</sup>
  -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혼란은 인플레이 抑制 뿐만 아니라, 生産

23) 참가자는 고르바췌프 전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던 페트라코프(Nikolay Petrakov), 고르바췌프시대의 경제정책담당 부총리였던 아발킨(Leonid Abalkin), 대통령평의회 위원인 사타로프(Georgiy Satarov) 등임. 페트라코프는 1990년 당시 急進的 經濟政策을 주장하였으나, 아발킨은 사회주의체제의 틀 속에서 漸進的 改革을 주장하였음. 페트라코프는 현재 産業企業家同盟에 비교적 가까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의 財政·金融政策은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경제팀이 부활하여 관할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음.

安定, 투자 촉진, 土地所有·賣買 제한 철폐, 破産法 시행, 구 소련 구성국과의 經濟同盟 추진, 西方의 경제지원<sup>24)</sup> 등이 종합적으로 병행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 바, 新政府의 경제정책이 단기간내에 效果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임.

## 5. 實利主義的·러시아中心主義的 外交·安保政策 추구

○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이후 새로운 外交·安保環境 속에서 대체로

24) 서방의 지원획득 문제는 체르노미르진 정부의 最大 難題임.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려 하여도 서방의 경제지원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임. 따라서 西方의 支援條件인 긴축재정과 인플레이 억제를 대의적으로 公約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서방의 경제지원을 염두에 두고 체르노미르진 총리는 1. 25 확대각료회의에서 1994년도 施政方針을 발표하면서 緊縮財政政策을 계속하고 國家 價格統制로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옐친 대통령은 2. 24 年頭敎書에서 월간 인플레이율을 연말까지 3~5%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을 뿐 만아니라, 1994년도 豫算案에서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0.2%로 억제한다는 작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대폭 삭감하여 특히 農業部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國防部의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음. 또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 26 개최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쇼힌 경제장관은 1994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억제하고, 인플레이율을 94년말까지 월간 7~9%로 내릴 것임을 약속하였음.

러시아 정부의 이와 같은 努力의 결과로 러시아는 1993. 4 G-7 東京會談에서 합의된 서방의 對러시아 포괄적 지원액 434억 달러의 계속 집행을 약속받게 되었으나, 재정적자율과 인플레이율에 대한 옐친·체르노미르진·쇼힌의 발표 내용이 모두 상이한 데서 나타나듯이 러시아 新政府가 서방의 要求를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서방의 경제지원 획득을 위한 임기응변적 宥和措置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隣近外國(Blizhnee zarubezh'e, near abroad) 重視外交,<sup>25)</sup> 武器輸出 外交, 經濟支援 獲得外交 등을 추진하여 왔는 바,<sup>26)</sup> 최근 러시아 권력구조 개편결과 中道·保守派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傾向은 한층 심화될 것임.

- 1992. 12. 1 발표된 러시아 외무부의 「외교정책문서」에 따르면, 향후 外交政策目標와 政策推進基調는 다음과 같음.
  - 구소련 각국에 남아있는 러시아系 住民 보호를 위하여 국제 기구에의 호소, 경제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이나 필요할 경우 軍事力을 행사함.
  - 러시아의 市民社會 형성에 最適한 外的 條件 창출을 위하여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발전과 서방의 경제지원·투자도입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핵무기 삭감을 통한 「핵무기가 위협이 되지 않는 구조」 형성을 위해 地域紛爭에 대해 적극적인 평화창출 활동을 담당하여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활동에 軍隊를 파견하고 필요할 경우 독자적인 自衛措置 발동도 불사함.
  
- 위와 같은 외교정책목표와 기조는 그동안 親西方 外交路線을 경주해 온 코지레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외교지도부가 중도·보

25) 「인근외국」이란 概念은 1992년초부터 러시아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舊蘇聯 構成共和國에 대한 通稱으로 이해되고 있음.

26) 자세한 내용은 姜元植, “러시아의 外交環境變化에 따른 새로운 外交政策 方向,” 「中蘇研究」, 제17권 제4호 (1993/4 겨울), pp. 91~121 참조.

수파의 압력에 따라 政策修正한 것인 바, 총선 결과 의회와 정부 특히 安全保障會議 구성에서 중도·보수파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으므로 향후 러시아의 외교·안보정책은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될 것임.

○ 특히 러시아민족주의를 통한 강력한 러시아의 再生을 강조하고 있는 지리놉스키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여, 급진개혁파의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최근 1. 18 인근외국 주재대사와의 회의에서 “구소련 구성국에 사는 러시아 住民의 권리와 이익 옹호”를 외교의 중요 전략으로 강조함.

-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구소련 구성국으로부터의 러시아軍 완전 철수는 安保空白을 야기”시키므로 러시아軍은 계속 주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CIS와 발트3국에는 러시아의 제1의 死活的 利益이 집중되어 있어 러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위협의 源泉이 존재한다”고 강조함.<sup>27)</sup>

- 이는 향후 러시아 외교가 구소련내 地域紛爭 해결과 러시아人 보호를 명분으로 CIS 역내국가에서의 러시아軍 駐屯을 강조하고, 武器輸出外交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실리와 안보실

---

27) 러시아軍은 현재 몰도바,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그루지야 등에 주둔하고 있으며, 발트3국의 경우 리투아니아로부터의 철수는 완료하였으나 17,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와는 撤收 交渉이 진행 중임. 따라서 코지레프 발언에 대해 발트3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외무부는 1. 19 “외무장관의 발언은 러시아와의 兩者協定으로 러시아軍 주둔을 결정한 CIS 국가에 대한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발트3국에서의 撤收方針에는 변경이 없다고 공식 해명하였음.

리를 도모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무력사용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함.<sup>28)</sup>

- 한편 러시아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함께, CIS 域內情勢도 러시아의 인근외국 중시정책 또는 러시아의 再生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특히 주목됨.
  - 1. 28 벨라루시 최고회의 의장선거에서 개혁파 슈슈케비치 (Stanislav Shushkevich)가 물러나고 보수파 그리브 (Mechislav Grib)가 당선됨. 그리브는 취임연설에서 貨幣統合 등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非核國家 정책유지를 강조함.
  - 1. 30 크림미야 대통령선거에서 러시아 復歸派인 메쉬코프 (Yuriy Meshkov)가 당선되었으며, 3. 27 우크라이나 신의회 선거와 함께 분리독립을 묻는 國民投票를 실시할 것임을 천명함.
  - 2. 3 그루지야는 러시아와 友好善隣協力條約을 조인함. 이 조약은 아브하지야紛爭 해결을 위한 共同作戰 수행을 명시하고, 러시아軍의 그루지야 주둔과 軍事基地 건설, 그루지야군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협력 등을 명시한 「사실상의 군사 동맹조약」으로서 CIS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외교·군사적 영향력을 확인한 것임.

---

28) 무력사용 가능성과 관련, 자유민주당 의원의 60%가 필요하다면 러시아인 보호와 구소련 재생을 위해 武力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응답한 輿論調查 결과도 있음. *Nezavisimaya gazeta*, 1993. 12. 18.



- 이와 함께 러시아는 美·日·中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국내정치·경제안정에 기여하고, CIS 역내에서의 러시아의 優越的(또는 배타적) 影響力을 인정받는 방향으로<sup>29)</sup> 이들 국가와의 關係를 모색·발전시켜 나갈 것임.
  - 對美 關係에 있어서 코지레프는 러·미 외무장관회담(3. 14,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등한 동반자관계를 천명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함.
  - 對中 關係에 있어서 코지레프는 訪中(1. 26~29)을 통하여 러·중 관계의 「장기 안정화」에 합의하고,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확립함.
  - 對日 關係에 있어서 엘친은 年頭敎書에서 영토문제를 포함한 모든 矛盾의 해결을 기초로 平和條約 체결을 모색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6. 舊體制 回歸 可能性 희박

- 러시아의 권력구조 개편결과, 中道·保守派의 세력 강화는 1992년초 이래 급진개혁파가 추진해 온 가격자유화 등 衝擊療法式 改革政策에 대한 國民的 反撥을 반영한 현상이나, 러시아가 舊

---

29) 최근 러시아 외교가 구소련 구성국에 대한 러시아의 影響力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西方側의 認知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지레프 독트린」이라는 표현도 범용되고 있음.

體制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

- 현재 러시아공산당과 농업당 등 保守 左翼政黨이 스탈린主義的 사회주의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極右政黨인 자유민주당도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러시아 民族主義를 빌어 강조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러시아의 民族·保守派 전체를 구체제 회귀를 목표로 하는 守舊勢力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음.

○ 러시아의 脫스탈린主義化·民主化·市場經濟化는 이미 大勢로서 러시아의 정국 향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전될 것임. 따라서 급진개혁파가 약화되고 중도·보수파가 강화되면 그만큼 混合經濟體制가 강화되고 改革의 速度가 완화된 것에 지나지 않음.

## V. 韓國의 考慮事項

- 한국은 러시아 政局의 推移를 精確하게 평가· 전망하면서 한·러 관계를 효율적으로 運營· 발전시킬 方案을 강구·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의 政治· 外交· 經濟· 軍事安保에 미칠 影響을 最小化할 需要가 있음.
- 러시아의 다양한 政治勢力과의 유대관계를 모색· 강화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체르노미르진 총리 等 産業系 人士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가이다르, 샤흐라이, 루츠코이, 야블린스키 等 次期 大權候補들과의 紐帶도 모색할 需要가 있음.
  - 政府 次元에서의 공식적인 연계가 어려울 경우, 議員外交를 비롯하여 다양한 民間外交 채널을 구축할 需要가 있음.<sup>30)</sup>
- 舊蘇聯 構成國家들과의 개별적인 紐帶를 강화하여야 함.
  - 구소련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聯邦體制가 재차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최근 구소련 구성국간의 經濟的 紐帶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소련 구성국 전체의 共同關心事를 조정하는 中央機構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음. 따라서 구소련 구성국간에 모색되고 있는 連繫傾向을 주목하고,

30) 엘친 대통령은 3. 9 訪리中인 닉슨 前 美대통령이 루츠코이와 면담하였다는 이유로 닉슨과의 회견을 거부한 바 있음.

個別 國家와의 관계를 강화·발전시킴으로써 구소련지역의 여하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對備策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外交政策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구소련 구성국가들에 대한 個別的인 政治·外交·經濟的 紐帶關係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러시아는 對韓 經協借款 償還方式으로 러시아製 무기수출 등 防産協力を 거듭 제의하고 있는 바,<sup>31)</sup> 러시아와의 軍事協力を 모색·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韓·美 관계, 무기체계의 상호 호환성, 事後管理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한·러 군사협력은 否定的일 수 밖에 없을 것임.
- 그러나 러시아 軍産複合體 人脈과의 유대 모색, 군수산업의 民需 轉換過程에의 참여를 통한 경제실리 도모,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어 등 對北 波及效果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나마 한·러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현재 러·北韓 關係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개방·개혁을 위하여 러시아가 보다 실질적인 役割을 수

---

31) 쇼힌 경제장관은 1. 19 러시아製 첨단무기 목록과 방산협력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 외무부에 보내면서, 전투기·미사일·잠수함 등 러시아製 武器의 완제품 제공, 공동생산 및 개발 등 防産協力を 구체적으로 제시함.

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韓國은 러시아와의 쌍무관계 및 다자관계 속에 北韓을 참여시킴으로써 북한을 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이는 북한의 개방·개혁을 앞당기는 效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南北韓과의 관계를 미리 정립해 둠으로써 러시아의 정국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한·러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될 것임.

○ 한·러 經濟協力에 있어서는 러시아 국내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나, 단기적인 경제이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進出基盤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면서도 꾸준한 接近方式이 필요함.

- 러시아가 IMF, IBRD 등 國際經濟機構에 가입하여 국제경제에의 편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雙務的關係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한·러 경제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되, 國際機構를 통한 多者間 經濟協力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러시아내 分權化 현상으로 지방정부의 經濟權限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러시아의 각 공화국이나 州 또는 邊疆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개발 경험에 대한 說明會나 韓國商品展示會 등을 러시아내 주요 도시와 지역을 순회 개최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모스크바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동시에 러시아 뿐만 아니라 舊蘇聯 構成國들에 대한 경제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

○ 한·러 관계의 中長期的 發展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韓國의 未來를 감안하여, 구소련지역 거주 韓人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입안·추진하여야 함.

- 일차적으로 韓人의 權利 보호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섭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인들이 極東地域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협의·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의 韓人 定着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條約 締結을 모색·실현하고,<sup>32)</sup> 100만평 규모로 설치될 예정인 연해주 나호드카 韓國企業專用工團에 한인노동력을 고용하는 한편, 극동지역에 재정착하는 韓人의 權益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강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2) 독일은 對러 經濟支援의 유리한 外交的 立地를 활용하여 스탈린이 2차 대전중 독일계 주민을 추방할 때까지 독일자치공화국이 위치했던 불가강 유역에 獨逸人의 再定着을 허용하는 條約을 러시아와 체결(1992. 7. 10)한 바 있음.

<부록> 聯邦議會 選舉參加 政黨·政治團體

	<p><b>러시아選擇(Vybor Rossi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가이다르(Yegor Gaydar) 제1부총리</li> <li>- 참가자: 필라토프(Sergey Filatov) 대통령부 장관, 슈메이코(Vladimir Shumeyko) 제1부총리, 표도로프(Boris Fedorov) 부총리, 추바이스(Anatoliy Chubays) 부총리, 코지레프(Andrey Kozyrev) 외무장관, 팜필로바(Ella Pamfilova) 사회보장장관, 폴토라닌(Mikhail Poltoranin) 연방정보센터 소장, 부르블리스(Gennadiy Burbulis) 전 국무장관 등 엘친정권의 권력핵심</li> <li>- 기존의 충격요법적 급진경제개혁을 지지함.</li> </ul>
개	<p><b>러시아統一合意黨(Partiya Rossiyskogo Yedinstva i Soglasiy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샤희라이(Sergey Shakhray) 부총리</li> <li>- 참가자: 쇼힌(Aleksandr Shokhin) 부총리, 스탄케비치(Sergey Stankebich) 대통령고문, 아이들라지포프(Ramazan Aydulatipov) 前 최고회의 민족원 의장 등</li> <li>- 체르노미르진(Viktor Chernomirdin) 총리와 소스코베쯔(Oleg Soskovets) 제1부총리는 배후 지지</li> <li>- 엘친 대통령과 시장경제이행을 지지하나 급진主義에는 반대하고, 地方의 立場을 존중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연방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함.</li> </ul>
혁	<p><b>러시아民主改革運動(Rossiyskoe dvizhenie demokraticeskikh reform)</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소브차크(Anatoliy Sobchak)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포포프(Gavriil Popov) 前 모스크바시장(선거불출마)</li> <li>- 참가자: 샤프쉬니코프(Yevgeniy Shaposhinikov) 前 CIS 통합군 총사령관 등</li> <li>- 엘친과 급진개혁을 지지하나, 경제정책은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면서 社會政策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지방분권, 혼합경제</li> </ul>
중	<p><b>야블로코(Fraktsiya bloka Yavlinskiy-Boldyrev-Luki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대표: 야블린스키 경제정치연구센터 소장, 사회학자 볼지레프, 루킨 주미대사 등 3인</li> <li>- 사회민주당, 러시아기독교민주당, 러시아공화당의 3당 연합조직</li> <li>- 엘친과 급진개혁을 지지하나, 가이다르 팀의 정책과는 정면 배치됨. 경제안정화의 관건은 인플레이 억제와 투자 촉진이라고 주장함.</li> </ul>
도	<p><b>러시아女性(Zhenshchiny Rossi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페두로바(Alevtina Fedurova) 러시아여성동맹 의장</li> <li>- 여성의 지위향상·평등 주장</li> <li>-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며, 어떤 정권이든 주장이 수용되면 지지함. 러시아에는 남성보다 여성 유권자가 많음.</li> </ul>

중	<b>러시아民主黨(Demokraticheskaya partiya Rossii)</b> - 당수: 트라브킨(Nikolay Travkin) - 참가자: 표도로프(Nikolay Fedorov) 前 법무장관, 글라지예프(Sergey Glaz'ev) 전 대외경제관계장관 - 개혁과 시장경제화를 지지하나, 투자와 생산 증대를 통해 민영화 하여야 하며, 지방으로 권한이 더욱 많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b>市民同盟(Grazhdanskiy Soyuz)</b> - 공동의장: 볼스키(Arkadiy Vol'sky) 산업기업가동맹 의장 등 7명 - 참가자: 루만제프(Oleg Rummyantsev) 전 헌법위원회 서기, 리피츠키(Vasiliy Lipitskiy) 자유러시아인민당 의장 - 1992. 6 자유러시아인민당 루츠코이 前 부통령, 러시아 민주당 트라브킨 당수, 산업동맹 볼스키 의장 등이 연합·결성하여, 한때 최대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1993. 4 국민투표 이후 분열되어 민주당이 탈퇴하고, 루츠코이 체포후 세력이 급격히 약화됨. - 개혁 지지하나, 개혁은 기업·노동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주택 건설을 중시하며, 소득격차 축소(현재 22배, 구소련 6배)를 위한 사회정책 실시를 강조함.
	<b>尊嚴과 慈悲</b> - 대표: 프롤로프(Ivan Frolov) 과학아카데미 부총재 - 제2차대전 퇴역군인과 배우 등을 중심으로 조직
도	<b>러시아未來</b> - 대표: 라셉스키 러시아청년동맹 서기 - 시민동맹의 청년조직
	<b>러시아建設的 環境運動</b> - 대표: 리말리 軍人어머니운동 의장 - 환경보호
보수	<b>러시아自由民主黨(Liberal'no-demokraticheskaya partiya Rossii)</b> - 의장: 지리놉스키(Vladimir Zhirinovskiy) - 民族主義政黨
	<b>러시아共産黨(Kommunisticheskaya partiya Rossii)</b> - 당중앙집행위원회 의장: जु가노프(Gennadiy Zyuganov) - 1993. 2 재건되어 60만 당원을 확보 - 개혁과 시장경제를 지지하나, 구소련의 사회보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b>러시아農業黨(Agrarnaya partiya Rossii)</b> - 의장: 라프신(Mikhail Lapshin) - 농업단체와 콜호즈長, 공산당지지자 일부를 규합한 보수계 조직, 반드시 농민의 대표는 아님. 자베류하(Aleksandr Zaveryukha) 농업담당 부총리 참가 - 농촌의 다양한 소유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획일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됨. 생산자가격은 시장가격과 조응되어야 함(러시아 인구의 25%가 농촌지역에 거주함).
민족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을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과 對內外政策 展望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 〈資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과  
對內外政策 展望

統一情勢分析 94-04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4년 3월 일

發行日 1994년 3월 일

---

---